

22/11/18 841211

11714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

평화와 정의 위해 여성의 힘 필요

—생명문제에 관심 갖는 교회여성—

박 영 숙(연합회 공보출판위원)

서독의 아름다운 휴양도시의 하나인 바덴바덴에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일간} 열렸던 「향한 전진」(Moving Forward Together)이라는 주제하에 8개국의 교회여성 30여명이 모여 평화와 정의실현을 위한 기독교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내가 속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는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또하나의 교단과 함께 서독서남부교회협의회(Evangelischen Missionswerks in Südwestdeutschland)와 자매관계를 갖고 있어서 해마다 한국과 독일에서 교대로 한 독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83년도에는 독일교회가 한국교회만이 아닌 그들의 모든 자매교회인 10개국(요르단, 테바는, 남아메리카,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스위스,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교회대표들을 한자리에 초청하고 길게는 200여년 그리고 짧게는 10여년간의 지난날의 자매교회로서의 협력관계를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관계수립을 위해 1개월간에 걸친 여러형태의 모임을 가진바 있다.

금번 협의회의 특이성은 비단 자매교회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것 뿐만이 아니라 각나라 대표를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공평하게 초청했다는 점과 본협의회에 앞서 여성모임을 별도로 갖도록 계획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여성모임에서 채택된 「여성의 소리」라는 명제의 건의서는 본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에 제출되었으며 여성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독일교회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한 노회에서는 약간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번 회의 과정에서 여성참가자들이 보람을 느낀 것은 모든 회의절차에 있어서 참여와 책임수행을 공평하게 담당하여 여성참가자들이 회의의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모임에서는 평화와 정의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둘은 쌍둥이라는 전제하에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이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① 교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여성과 청년의 참여가 증시되는데 그러기에 앞서 교회운영기구에 평신도의 참여의 문이 넓혀져야 하고 결의기구가 교회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일

② 평화와 군축내지는 무장해제를 위한 교회여성의 노력을 종래의 국가단위에서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연합전선을 펴는 일

③ 세계도처에서 음성적으로 만연되고 있어 인권유린에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생관광을 방지하는 일에 교회여성이 앞장서는 일

④ 정의사회의 저해요인이 되고있는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그리고 다국적기업으로 인한 제반문제 특히 노동자문제에 관련된 불의제거에 힘쓰는 일

⑤ 「나」만이라는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파생된 세계평화의 파괴요인을 제거하는 일

⑥ 변천하는 가정생활에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일 등을 교회여성의 오늘날의 상황에서의 기독교자의 과제로서 모색하며 이 모든 일을 혼자서가 아닌 합해진 힘으로 해보자는 것이 주로 토의되고 결의된 내용들이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기독교인 특히 평화와 정의의 위해 투쟁하는 집단은 소수집단으로서 거대한 악의 힘에 대항 하기는 너무나 힘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전선형성이 강조되었다.

독일에서 이 모임들이 열리고 있는 동안 제네바에서는 구라파지역 신형 핵무기배치문제에 관련된 미소 양국의 회의를 열리고 있어서 구라파 전지역에서는 평화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였다.

10월 2일 주일 쾨겐겐서 한 교회의 저녁예배에 우리대표일행은 초청을 받았다. 「생명을 위한 기원행진」(Bittgang für das Leben)의 일행이 그지역 그지역에 도착해서 특별히 드리는 예배였다. 그곳에는 배낭을 짊어진 간편한 옷차림의 수많은 남녀노소의 무리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예배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백색의 스카프를 목에 걸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아기 기저기였다. 이 행진은 9월 18일에 모스박이라는 도시를 출발해서 10월 8일 퇴락에 도착하는 21일간에 21개도시를 행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그그장의 시민에게 그들의 뜻을 전하고 서명을 받는 한편 행렬에 가담케하여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그모든 서명을 제네바회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가담으로 이어진 이 행진은 놀랍게도 하나의 단순한 젊은 어머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들일행과 만날때가 15일째 되던 날인데 그때 이미 큰 운동으로서 사회의 여론을 일으키고 있었다.

10월 17일 독일에서 산수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도시로 알려져 있는 후라이부르크에서

전국의 평화 운동 단체와 여성 단체가 연합해서 전개하는 평화시위를 참관하는 기회가 있었다. 종일 계속된 이 행사는 각종 자료보급을 비롯해서 핵으로 인한 인류멸종의 위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옷과 피투성이의 옷,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백색탈 등을 동원해서 그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저녁 5시에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운동정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행사를 끝냈다.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그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독일을 떠난 10월 28일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10월 26일에는 인간사슬이 1백 km나 이어지는 대대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운동에는 이름이 알려진 전 수상도 끼어 있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반응이 없게 되자 드디어 미군부대앞의 행길을 가로 막는 불법시위로 번졌다는 보도가 들리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도시마다 가두데모 또는 가두서명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참여자가 모든 비용을 자담하고 있어 운동전개가 용이하다는 것과 어떤이가 운동을 시작해도 뜻이 좋으면 호응하고 가담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와 그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행열을 통제할만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기도 하였고 정보기관의 조사가 항상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가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권고가 있는 것으로 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제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름든 지금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인류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불길같이 솟고 있다. 문제는 위협의 열쇠를 잡고 있는 공용과도 같은 힘의 주체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큰 힘앞에 간헐적인 바람은 보잘것 없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자를 드러강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